

[사막 교부들의 말씀]

여러 저자

3-5 세기 은둔자와 수도자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들은 속세를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 겸손, 자비, 극단적 고행의 삶을 살았다.

- 사막 교부들의 고행은 죄악이 신체를 지배하는 힘을 물리치고 하느님과 좀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 신체적 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사람의 내면은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고 그 상태는 종종 겉에서 보아서 알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신체의 쾌락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육체가 아니라 정신으로 간음을 저지른다.
- 사막의 교부들은 금욕 수행에 대하여 결코 자부심을 표시하지 않았고, 좀처럼 남을 비판하지 않았다. 사막 교부들의 또 다른 미덕은 자비였다. 남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남들의 필요를 더 중시하는 자비심을 가지는게 아주 중요했다.
- 순박함과 고행을 철저히 실천하는 사막 교부들은 오늘날의 편안한 기독교에 직접적으로 도전한다. 교부들은 남을 비판하지 않았다. 자신의 결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의 결점은 보지 못한다. 사막의 교부와 교모는 순박함, 은밀함, 고독 등의 영적 단련을 실천하는 데 대단한 사례와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는 제일 반문화적인 것으로 보이는 개념에 집중함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압바 아가톤이 말했다. “만약 내가 문둥이를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내 몸을 주고 대신 그의 몸을 받으리라. 그러면 나는 행복하리라.” 그것은 완벽한 자비였다.
- 압바 펠루시아의 이시도레가 말했다. 말없이 사는 사람은 그 침묵으로 좋은 일을 하지만, 삶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은 설새 없이 말만 할 뿐 아무런 좋은 일도 하지 못한다. 말과 삶이 서로 일치하면 그 둘은 함께 건실한 철학이 된다.

-